

임채빈, 정종진 제압...81연승 신기록

막판 역습 노리던 정종진 따돌려
올 시즌 승률·연대율 모두 100%
꿈의 기록 100연승 '-19' 가시권

경륜 최강자 임채빈(25기 31세)이 올해 마지막 대상경주 타이틀도 차지했다. 임채빈은 10월 30일 광명스피돔에서 15경주로 열린 '일간스포츠배 대상경륜'에서 막판 역전극으로 우승을 했다. 경주 초반 자리잡기에서 후미에 뒤처져 있다가 마지막 바퀴 3, 4코너에서 선두로 나서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우승한 임채빈은 1400만원, 2위 정종진(20기 35세)과 3위 박용범(18기 35세)은 각각 1100만원과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꿈의 기록 '100연승' 이 가시권에

이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맞대결 설욕을 노리는 정종진(광경2위)과 임채빈의 맞대결이었다. 두 선수는 이번 경주 전까지 4번 맞붙어 모두 임채빈이 승리했다. 토요일까지 임채빈은 올 시즌 승률 100%, 연대율 100%를 기록하며 단 한 차례도 우승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정종진은 연대율은 임채빈과 동일한 100%이나 승률이 91%로 조금 뒤처졌다.

두 선수가 가장 최근 격돌한 경주는 6월의 상반기 왕중왕전이었다. 당시 임채빈은 정종진을 견제하지 않고 초주부터 당당히 후방에 세우는 정면대결을 선택했다. 임채빈은 막판 역습을 시도하며 끈질기게 추격한 정종진을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대상경주도 왕중왕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임채빈은 다시 한번 정종진을 뒤에 두는 초강수를 두었다. 인치환이 선행 승부로 먼저 선공을 했으나, 임채빈은 결승선을 빈바퀴 앞둔 지점부터 추격을 시작해 3, 4코너에서 선두 탈환에 성공했다. 이후 결승선까지 거침없이 내달리며 정종진의 추격을 반차신 차로 따돌렸다. 수개월 전부터 강



10월30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대상경륜 시상식에서 임채빈 선수가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도 높은 훈련으로 몸을 만들었던 정종진은 또 한 번의 패배에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임채빈은 이번 승리로 연승 기록을 81승까지 늘렸다. 꿈의 기록인 100연승까지 어느새 19승 차이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번 맞대결에서 또 석패한 정종진은 설욕의 기회를 두 달 후에 열리는 그랑프리까지 미루어야 할 처지다.

●우승만큼 관심 끈 3위 싸움, 박용범 승리

이번 대상경주의 또 다른 볼거리는 누가 3위에 오르느냐였다. 경륜 특성상 삼복승의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상황에서 임채빈과 정종진 1, 2위 싸움이 사실상 굳어진 상황에서 남은 한 자리인 3위 경쟁이 치열했다.

인기순위에서는 경주에 출전한 선수들 중 만행인 17기 인치환이 앞섰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치환은 임채빈, 정종진과의 협공이 부각되며 인기를 모았다. 그 뒤를 이어 현 경륜 최고의 마크맨을 자처하는 박용범이 기록했다. 이태호와 공태민이 각각 인기 5, 6위권을 형성했다. 인치환이 앞선에서 승부수를 띄우면서 초반 승기를 잡은 듯 보였지만 임채빈과 정종진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작외로 밀려났다. 대신 막판 스퍼트를 발휘하며 직선 반격에 나선 박용범이 특유의 추입력을 발휘하며 3위로 들어왔다. 이태호의 거친 몸싸움을 이겨낸 박용범의 투지가 돋보인 그야말로 관록의 승리였다.

한편 준결승에서 몸싸움을 통해 정종진의 후미를 따냈던 이태호는 임채빈의 뒤를 노렸지만 박용범의 견제에 밀리며 작외를 기록했다.

임채빈은 수상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견제가 심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경기흐름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힘든 경기였다"며 "한 바퀴를 남기고 정종진 선수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 추임을 허용하면 진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았다"고 밝혔다.

최강경륜 설계석 편집장은 "시즌 마지막 대상경주의 우승자가 그랑프리도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우승이 임채빈 선수의 그랑프리 2연패와 연승 가도에 청신호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동경륜장 고객편익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동경륜장에 고객편익센터 세워진다 국민체육진흥공단·광명시 건립 업무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광명시는 10월 28일 '광명동경륜장 고객편익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현재 공단 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광명 갑), 안성환 광명시의회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명동경륜장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고객편익센터를 건립하고, 광명시는 시설물 축조 허가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협조한다.

고객편익센터는 광명동경륜장 옥외 농구장에 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건축면적 3000㎡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이며 다목적 코트, 체력단련실, 문화센터, 편의시설, 상담시설 등 생활체육 활성화, 경륜고객 체육 및 편의시설, 경륜선수 훈련 등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완공 목표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센터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경주사업총괄본부, 안전경영 리빙랩으로 혁신 선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고객제안 리빙랩을 성료했다. 리빙랩(사진)은 현장 중심으로 이용자가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정책 중 하나다. 경주사업총괄 본부는 상반기 고객 대상 제안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729개의 의견 중 13개 주요 분야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안전제안 공모는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운영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한 경영혁신 사례다.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 고객 제값감 향상 시설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효과 증대, 경주사업 시행체 협업을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방체육회장단(17개 시도체육회장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장)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체육계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12월 실시 예정인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규정 준수 의지를 결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경기도체육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지역별로 개최한다. 특히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현황, 민선 1기 지방체육회의 주요성과, 2022년 대한체육회 주요행사 추진결과 및 2023년 주요행사 등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체육 발전방안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육단체 운영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김종민 vs 조성인, 시즌 다승왕 불꽃 경합

김종민 현재 38승 다승 1위 질주
조성인 35승...후반기 페이스 곳

김종민(27기)과 조성인(127기)의 다승왕 경쟁이 치열하다.

경정의 대표적인 개인 타이틀로는 대상(특별)경주와 다승왕, 상금왕 등이 있다. 대상경주는 특정 기간 성적을 바탕으로 예선을 거쳐 결승에서 우승하는 타이틀인 반면, 상금왕과 다승왕은 경기력에 기록이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해야 획득할 수 있는 타이틀이다.



미사리경정장에서 선수들이 턴마크를 돌며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금까지 다승왕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3회의 심상철이다. 심상철은 2016년 41승, 2017년 45승, 2019년 43승으로 다승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그 뒤를 이어 박현성(1기), 이웅석(17기), 김종민(27기), 이재학

(27기), 어선규(47기)가 2회씩 차지했다. 다승왕을 1회 기록한 선수는 김현태(17기), 권명호(17기), 서화모(1기), 우진수(17기), 김민천(27기), 김용선(117기), 조성인(127기) 등이다.

다승왕을 3회나 기록한 심상철은 올해 출발위원(플라잉)으로 많은 경주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26승에 그쳐 있다. 2회 기록한 선수들 중에는 김종민을 제외한 대부분이 승수 쌓기에 고전하며 역시 20승 중후반에 머물러 있다.

반면, 김종민은 현재 38승으로 다승 1위를 기록 중이다. 67회 출전 중 1차 38회, 2차 11회, 3차 4회를 기록하며 승률 55.2%를 기록하고 있다. 김종민의 뒤를 35승으로 바짝 추격하는 선수가 지난해 다승왕 조성인이다. 총 70회 출전에 1차

35회, 2차 11회, 3차 9회를 기록하며 승률 50%를 올렸다. 특히 후반기 페이스가 무척 좋은 모습이다.

김종민과 조성인은 지난해 대상경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더니 올 시즌도 다승왕 경쟁에서 다시 격돌하고 있다. 현재 28승인 김요년, 어선규, 심상철 등도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남은 기간 선전에 따라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이서범 경정코리아 분석위원은 "지난해 첫 다승왕에 오른 조성인의 연속 타이틀 도전과 현재 1위인 김종민의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격하는 선수들도 최근 선전을 펼쳐 남은 경주에서의 박진감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생활체육

대한체육회, 2024년 완공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추진

K-water·장흥군과 협력 개발
공급팬 소나무 2만그루 효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10월 28일 전남 장흥군청에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체육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체계적

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체육 분야 특수성에 기반한 종합 교육·연수시설이다. 총 사업비 43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1111㎡, 약 200명 수용 규모의 지상 4층 교육동과 지상 4층 숙박동, 지상 2층 체육관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장흥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탐진강과 장흥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체육시설로서는

최초로 체육인재개발원에 적용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K-water, 장흥군과 협력해 체육인재개발원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체육인의 건강증진, 탄소중립의 선제적 이행 및 소도시형 그린뉴딜선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열에너지 공급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전력사용량 520MWh 절감 및 온실가스 130tCO₂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30년 산 소나무 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재개발원을 통해 모든 체육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스포츠 선진화에 일조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동을 선도함과 동시에 건립지역인 장흥군, K-water 영·섬유역본부와 지역 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체육인재개발원 완공 후에는 K-water에 해당 시설에서 사용한 수열에너지 데이터 정보를 공유해 친환경 체육시설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